돈 소유의 맛, 돈 정복의 맛

(역대상 20:1~8)

1.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2.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3.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써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돈 소유의 맛, 돈 정복의 맛>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돈 소유의 맛, 돈 정복의 맛'

오늘 제목에서 돈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서 간절히 염원하는 모든 가치의 대표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만한 모든 가치를 소유하는 맛과 그 모든 가치를 정복하는 맛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소유와 정복은 상식적으로나 사전적으로나 의미가 포개질 수 있어 보입니다.

'소유'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와 정복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들을 실천적으로 적용해보면 사정이 바뀝니다.

길을 가다가 장미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고 한 송이를 꺾습니다. 이제 꽃은 내 소유가 되었으나 그러한 행동은 장미의 아름다움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소유와 정복의 관계에서 정복당한 자는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고 소유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이 거대한 사건도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러시아가 가진 매력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돈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돈을 벌면 그것을 정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매력에 사로잡힌 자만이 '나를 벌고 나를 가지라'는 돈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돈을 소유해서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고 나를 속이는 기쁨이기 때문에 돈을 소유함에 기쁨의 이유를 두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정복해야만 합니다. 소유

하려고 하면 돈에게 이미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돈을 소유하게 하는 마음은 나를 망하게 하는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돈맛이 좋을수록 마약입니다. 마약을 하면 할수록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은 반드시 불행해지고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한편 돈을 정복하는 맛은 정말로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돈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역대기는 앞부분에서 답을 내놓고 그 답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라고 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미 사무엘하 11장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 다음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이는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 이야기를 완전히 빼버렸는데 그렇다면 에스라는 다윗의 영광만을 기록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한 번 저지른 범죄를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일상적으로 저질러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에 대한 지적이 아닌, 잘못으로 일어난 패망과 포로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회복된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밧세바 사건을 누락시킨 것입니다.
에스라는 역대기를 쓰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함이 아닙니다. 다윗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선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참 선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에스라가 지리할정도로 족보와 명단을 나열하는 부분을 통과했습니다. 족보와 명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한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천 년 전의 지점으로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제는 돈을 정복하는 것이 참 선민의 모습임을 말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정복하는 것이 참 선민의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에서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이어져 나가서 예수님께로 귀결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포개어질 때에 돈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패망의 경험을 딛고 참 선민의 모습과 나라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가치로서의 돈을 소유하지 말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말을 했지만 성경적으로는 “소유냐 정복이냐”라는 말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암몬은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여 스스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에 의해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암몬 자손을 끝까지 추격하여 멸절시키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철의 우기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그 우기가 지나 건기에 접어들자 마치지 못했던 정복을 다시 수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다윗이 금 한 달란트로 만든 그 왕의 왕관을 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kg로서 머리에 쓰는 왕관의 무게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말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밀곰’이라고 불리는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즉 우상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 놓았던 것이고 그것을 다윗이 썼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치의 정복이고 돈을 소유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바알이든 아세라든 밀곰이든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우상을 만들어 냅니까?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염원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우상숭배는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갖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고, 인간이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의 가치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관을 썼다’는 것은 사람마다 이 세상의 원하는 가치들 중에서 특별히 더 강조되는 가치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형통이 최고의 가치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과 외모가 최고의 가치일 것입니다. 이 가치들이 내 마음에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고 그 왕관을 썼다는 것은 가치를 정복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가치를 정복한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 돈을 정복했다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선 나를 위해서 돈을 지출하는 구멍이 작아집니다. 정복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나를 위한 구멍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노후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댁에 갔더니 가구가 이상합니다. 저희 집의 가구는 다른 분들이 보시고 독일에서 유학생활 때 가구를 그대로 쓴다고 할 정도인데, 그 장로님 댁은 사업을 제법 크게 하시던 분으로 외국 바이어들을 모셔서 집에서 파티를 할 정도로 여유 있게 사시던 분인데 가구가 저희 집보다도 더 낡았습니다. 바닥

의 장판은 다 닳은 비닐장판입니다. 요즘 같이 명품을 좋아하고 자랑거리로 여기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 분이 교회에 일이 있을 때에 1~2억 씩 헌금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을 정복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지출의 구멍은 극히 미세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속이 비었다면 돈이 없어도 자기에 대한 지출의 구멍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떡볶이 장사 할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가치에 의해서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갖지 않음으로써 다른 세상의 가치를 채움으로 돈을 정복한 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세상 가치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귀중한 가치일 경우에는 사업에 전념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없이 보내는 사장님에 비해서 훨씬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돈을 적게 벌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돈을 정복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유는 자식이라는 가치가 마음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암몬 족속에 대한 주권을 발동시키고 선포하면서 우상 밀곰의 머리에 쓰여 있던 35kg 가까이 되는 왕관을 다윗이 잠깐 머리에 썼을 것입니다. 암몬이 속국이 되는 의미로 왕관을 썼는데 이것이 의미하는바 우상은 세상가치에 대한 인간의 열정이 밖으로 표현된 것으로 가치를 정복한다는 상장적인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들은 나를 위해 쓰는 돈이 많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기쁘기 때문에 돈이 주는 기쁨이 보태질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뜻이 생각으로 전해지면 지출할 때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안 쓰면서 남을 위해서든지 신앙적 명분이 생기면 펑펑 쓰는데 이게 돈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다 그렇습니다. 명예나 권력도 주님을 보면 압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과 출세였습니다. 서기관의 경우에는 어떤 스승의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학파가 올라서면 자기의 인생이 올라서는 것이고 그 학파가 별 볼일 없으면 자기의 인생이 별 볼일 없게 됩니다.
마8:19~20절에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쫓으려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에 정복당한 상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치들을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쫓아오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정복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도 블레셋 잔류민들과의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르바임 거인족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의 동생도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다 무찔렀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뜻하는바 소유와 정복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발동하는 세상 가치를 갖고 싶은 소원에서 소유와 정복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가진 자가 정복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잔류민들 거인족들과의 싸움이 말하려고 하는바는, 우리는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많은 감각의 재료들에 의해서 소유와 정복의 관계 안에 휘둘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골리앗 같은 거인이 나타났을 때에 사울 왕의 반응은 골리앗을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골리앗을 소유한 것인데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마음의 사령부 안에 원수를 끌어들여 놓은 것입니다. 정복은 암몬을 정복했을 때에 랍바 수도에 들어가서 왕궁에 까지 쳐들어가고 왕궁에 앉아있던 왕을 끌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사건이나 상황들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끌어들이면, 내가 소유한 것처럼 보여도 실지로는 내 마음의 사령부를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으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곧바로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반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생각도 하지 말고 사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앞에 골리앗이 보일 때 눈앞에 대한민국의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터져서 날마다 뉴스에 나오고 보고 있으면 울화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나이 드신 권사님과 저희 어머니에게 동일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도무지 살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속이 상해 죽겠다'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미 진 것입니다.
블레셋의 잔류민인 르바임 거인족들을 쳐부순 다윗의 신하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눈앞에 골리앗 같은 사건이나 사람들이 나타날 때 우리 마음은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면 골리앗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대기가 처음부터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윗의 자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갑니

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먼저 마음이 보면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에 대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정복입니다. 내가 그것을 직접 반응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면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였으므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내 마음에 끌어들여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미워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 내용으로는 원수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마음에 끌어들여놓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갖고 싶고 부흥을 일으키고 싶고 외모를 바꾸고 싶으면 이미 내 마음은 가치에 의해서 정복당한 것이고 가치의 매력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논개가 일본 왜장을 가락지 낀 손으로 끌어안고 남강으로 떨어져 죽은 것처럼 나를 정복하고 있는 세상 가치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마음의 소원이 될 때 돈을 밀쳐내려고 하는데 이 싸움은 성립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끌어안고 있는 마음 자체를 십자가에 걸고 '돈을 좋아하는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돈을 좋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돈을 좋아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골리앗 같은 존재가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마음에 판단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끌어안은 채로 십자가에 몸을 던져서 죽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대한민국의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괴롭고 걱정이 되고 미래가 염려될 때 내 마음 자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점 삼으십니다.
나는 정치판의 사람이 아니라도 내게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고 하나님을 갖지 못하면 이 상태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생기면서 그 사람 속으로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을 누가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을 누가 이끌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치들의 소유의 맛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의 맛에 의해서 사는 자들인데 어떻게 세상 정복의 맛에 의해서 살 수 있을 까요? 하나님께 정복되어서 하나님을 소유할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로 끊임없이 세상 가치에 정복되고 사건에 정복되

는 나를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 정복의 맛에 의해서 살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세상 것을 소유하고 싶은 나 자신이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역사가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